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3월19일(금)  
(윤력 2월 7일)  
Пятница  
19 марта 2021г.  
№ 11 (1192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3월의 3번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서비스 분야 근로자들의 직업 기념일이다. 올해는 3월 21일에 기념한다.  
▲ 류 드미트리(51)는 <베네라>미용 스튜디오 대표다. 그는 최고급 미용패션 디자이너이며 <돌로레스>모스크바 미용아카데미 출신으로 미용 분야에서 이미 20여 년간 활동을 하고 있다.  
<베네라>스튜디오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우수기관 경연의 소비자 서비스 부문에서 1등 한 바가 있고 작년 3월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취재: 이에식 기자)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회 시 기악 경연 개최

3월 17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회 시 기악 경연이 시작되었다. 경연에는 아동음악학교와 예술학교 학생들(7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다.

3일간 음악학교의 학생들은 4개 부문 - '독주',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 '오케스트라', '재즈 및 가무' -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총 400여 명의 음악인들이 무대에서 연주하고, 각 부문별 수상자와 대상 수상자 발표는 3월 19일 갈라 콘서트-폐막식에서 발표한다.

### 사할린에 대한 영상, 모스크바 국제 관광전시회에서 1등

모스크바 국제 관광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러시아 지역의 우수 동영상>경연에서 '사할린은 나의 섬'이란 영상(제작은 사할린 출신의 콘스탄틴 예피모브)이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라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위는 티바 공화국, 3위는 튜멘주가 차지했다.

올해는 지역 동영상 경연 최종 단계에서 동영상 25편들이 경쟁하였다.

## 종합건설 기획으로 극동지역에 대기업들을 유치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 및 북극 개발부는 10만㎡ 규모의 종합건설 기획으로 대규모 건설자들을 극동연방지구에 유치할 전망이다.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세이 체쿤코브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최대 규모의 기획을 제공함으로써 '피크(PIK)' 회사 그룹을 비롯해 다른 대규모 개발자들을 유치할 때이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주택 건설 방식에 따라 우리는 종합개발 건설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만, 15만, 20만㎡ 규모의 기획들을 제시함으로써 대규모 건설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택단지 건설부가 거부하는 이유들 중에는 도시환경의 피해를 거론하고 있다.

단번에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않는다면 도시가 종합개발 건설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 보통은 더 나빠진다. 우리는 집 한 채 건설로 극동지역까지 오는 데 6-8시간 걸리는 대규모 건설자를 유치하지 않는다. 종합적 건설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 '피크' 회사 그룹과 사할린주 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주택 건설 시행에 대한 계획도 확정되었다. 기획의 시행 기간은 2031년까지 총 300억 루블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회사와 모스크바 일반계획연구소가 도시 공간개발의 전략 건설에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피크' 회사 그룹은 러시아 개발회사로서 서민 주택 건설 및 시행에 중점을 둔 회사이다.

## 코로나19비상 지침 해제

주지사령에 따라 3월15일부터 직원의 30%를 원격근무방식 전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한다. 또한 이제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부모의 동반 없이도 쇼핑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3만2천여 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매일 코로나 19의 감염도 감소 추세이다. 이런 상황으로 점차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에서 집합 인원의 제한 지침에는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 소매 상점들, 공공 교통수단, 약국, 병원,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 등,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변함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켜야 한다.

## 주정부, 지방자치체로 출장 형식 확대

사할린주 정부 수상(총재)이 그의 수하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체로 출장을 가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정부 회의서 발표한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방자치체로 정기적 출장을 통해 수칙과 크기와 규모를 넘어 주민들을 만나고,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식의 정기 출장은 3월 18일(목)로 예정되었고 알렉세이 벨리크 주 정부 총재가 출장차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지역을 방문하여 사회적 및 공공 분야의 시설을 시찰하고 건설 현장도 찾아갈 예정이다.

## 트루트네브 부총리, 극동 단일 항공사 한 달 안에 운항해야

'오로라' 극동 단일 항공사가 한 달 내에 운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가 언급한 가운데 "오로라 항공사는 이미 모든 극동지역 행정자치체들 사이에 5%씩 주식을 배당했다. 현재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는 달마다 서류 작업만 할 수는 없다. 한 달 내에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라 항공사 및 극동개발부 지도부와 함께 극동 단일 항공사 설립을 논의했다.

2021년 현재 항공사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금으로 35억 루블리 정도가 필요하다. "이 금액이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정부 총재에게 보고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회사 운영의 초기 보조금으로서 이 금액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관구 러시아대통령 전권대표가 덧붙였다.

알렉세이 체쿤코브 극동개발부 장관에 따르면 단일 극동 항공사 노선망 구축 작업은 3월 말에 마무리되며, 주요 노선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런 청구서가 작성되어 교통부와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9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부와 총결 회의에서 극동지역 운송을 위한 항공사 설립에 대해 요청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기획은 기한상 2024년까지, 전망상 2035년까지 극동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개발의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새고려신문

##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in.ru



# 사할린 태권도 대표선발팀 김 제니스 감독, '러시아 공훈 사범' 칭호 서훈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 장관 알렉 마티쉬이 '러시아 공훈 사범' 스포츠 명예 칭호 서훈에 대한 수여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사할린에서 이 칭호의 수훈자가 생겼다. '공훈' 칭호 수훈자는 사할린주 태권도 대표 선발팀 감독인 제니스 김(1981년 9월 11일생)이다. 그는 8세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스포츠 장인 규정을 모두 달성했다. 러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고, 러시아 아시아권대회에서 최우승을 2번 거두었다.



사범으로서 20년간 근무했으며, 최상급 코치이자 사범이고 태권도 국제 부문의 심판이다.

김 제니스 사범의 제자들은 사할린 지역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대규모 국제 및 러시아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을 거두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의 홍보부가 전했다.

## 모스크바에서 사할린주 관광 잠재력 소개

모스크바 '스포츠 마라톤' 여 행사들의 클럽 행사장에서 진행된 사할린 지역 소개는 사할린 관광 안내센터와 공동으로 사할린주 관광부가 주최했고, 진행자는 '러시아의 휴식' 잡지의 총편집장인 안톤 세묘노브가 맡았다. 이 행사에서 관람객들에게 사할린에 가는 방법, 숙소 장소와 방문 할 만한 명소를 소개하고, 사할린의 요리를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는 자주 전시회를 열고 이와 유사한 행사들에 참가하여 사할린의 관광 잠재력을 발표하는데 바로 이곳에서는 처음이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은 러시아 지도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고, 가장 독특하며,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색다른 지역들 순위에서 가장 자주 지목되는 지역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할린의 자연과 한적한 주변 환경에 폭 빠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다양한 행사장에서 사할린의 관광 잠재력을 발표하면서 사할린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할린 관광안내센터의 총책임자인 올레그 로마노브가 설명했다. 발표회 참가자들은 사할린의 관광 상품에 대해 자세히 소

개할 수 있었고, 행사에 참가한 사할린 관광 운영자들과도 교류했다. 또한 사할린 손님 접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연어류, 연어알, 가리비, 사할린의 해산물 요리를 시식하도록 했다.

발표 과정에서 참가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2인용 사할린 5일 여행권을 선사했다. 우승자는 가을에 사할린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남은 방문객들에게도 기념으로 사할린주에 대한 팸플릿과 엽서를 선물했다. 중요한 것은 사할린 지역 방문에 대한 희망과 감동을 준 것이다.

## 중소기업 경제조사 시행

사할린 통계청은 2021년 초부터 러시아 연방 법률에 부응하여 2020년 종결에 따른 행정자치 지역들의 중소기업 활동들에 대한 전면적 감찰을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전면 감찰은 5년에 한 번 시행되며 감찰 대상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전면 감찰은 소규모 사업체들의 경제 목록 조사이다. 사할린주에는 2만 4천여 개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이 있으며 그 중 1만 6천 여 개의 업체들이 개인사업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소규모 및 초소규모 업체가 70%이고, 55%의 개인 사업체다.

조사 대상자들은 사할린 통계청의 보고 양식 - 중소기업체( МП-сн) '2020년 한 해 소규모 업체의 기본 사업 지표에 대한 보고' - 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법인과 1호 사업체는 '2020년 개인 사업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 통신 기술망을 이용해 사무실 안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바쁜 관계로 러시아 통계청은 모두에게 전자 통신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 제출 방식은 편리하게 2가지로 하는데 '사할린 통계청' 웹 수집 시스템을 통하거나 혁신적인 보고 방식으로서 처음으로 '고스 슬루기'국가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약 40명의 사업자들이 '고스슬루기'국가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전자 보고서는 서류상 확인을 요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들은 4월1일까지 사할린 통계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통계청 측은 4월 1일 이전에 신속히 처리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찾동' 프로그램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이라는 비대면 화상접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3.15(월) 아프리카·중동 지역 한인회장들과 처음으로 '찾동' 간담회를 갖고, 거주국 코로나19 돕기 및 모국 지원 활동에 대해 협의하였고, 재외동포 백선접중

기회 등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3.17(수)에는 지난 6년 간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미국 한인회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미국 10대 지역 한인회장들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화상으로 만나, 미래지향적인 미국 동포사회 대표기구 개설편안에 대해 상호성 있는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10월 발족 예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추진위원회에 참석할 미국 측 옵저버(찰스윤 뉴욕한인회장)를 선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현 상황에서 동포사회 애로사항과 코로나19 이후의 실질적인 동포사회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외동포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생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재단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포재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동포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 교육부,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전년대비 2배인 236억원 예산 확보해 전 세계 43개국 1800개교의 한국어교육 지원 목표 신남방·신북방 집중 지원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기반 교재 및 맞춤형 교재 개발 착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월 14일 발표했다.

1999년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교육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높은 수요로 한국어교육이 확대됐고, 2021년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와 협업예산을 통해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236억 원을 확보·지원하며, 특히 전략적 협력 대상이자 한국어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2022년까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2022년까지 45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목표로 2021년에는 43개국 1,8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등 3개국과 라오스·캄보디아 등 시범교육 국가를 포함해 현지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 교육당국(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한국어반 개설과 제2외국어 채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발한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한 것으로 학습자의 숙달 정도에 따라 재구조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총 8단계(초급 4등급, 중급 4등급)로 세분화돼 있다.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발한 교육과정에 기반해 초·중급 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 중에서는 현지 교육당국과 협의해 현지 맞춤형 교과서와 교재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재도 개발해 온라인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문화·역사 이해 제고와 학습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보조교재도 함께 개발·보급한다.

### 한국어교육 전문성 제고

2022년까지 현지 교원양성과정 24개, 교원 파견 200명, 연수는 5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2021년에 14개 교원양성과정, 파견 132명, 연수는 4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강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올해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지역에서 7개 과정 내외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신북방 지역에서 7개 과정 내외로 현지 대학 내 학위 또는 비학위(단기) 양성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GKS)과 연계해 현지 국가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132명의 원어민 한국어교원('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을 파견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남방·신북방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통합연수, 현지 맞춤 연수 등을 통해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

한국어교육의 거점으로서 작년 12월 신설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점교육원(태국, 호치민, 로스토프나도누,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인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한국어교육 협력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 기회 확대와 평가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도 완비한다. 현행 지필고사 방식을 개선해 2023년에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전면 시행, 2022년 말하기 평가 시험 및 문해능력 출제 방식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인하는 등 코로나19에도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수요가 높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며, "희망하는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지 교육당국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цу Денису Киму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ого тренера Росси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ег Матыцин подписал приказ "О присвоении почет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й тренер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ему,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ся обладатель этого звания.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присвоено главному тренеру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тхэквондо Денису Киму.



Денис Ким родился 11 сентября 1981 года. В восемь лет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тхэквондо. Выполнил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Был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двукратным чемпионом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Его тренерский стаж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20 лет. Он является тренером-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а также судь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атегор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Его воспитанники известны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ни не раз побеждали на крупней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онсул Квак Ки Донг: Вс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в Корею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связи со вступлением в силу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и об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ереехать на ПМЖ смогут 350 чел. Работу по приему документов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Обществ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ведом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СНГ. Так как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рожив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конечно же, основной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ей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задала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начальник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осподину **Квак Ки Донгу**.

**- Господин консул, с какими визами сегодня возможен въ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может оформить документы для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въезда, для учебы, делового(коммерческого) визита, а также визы для сопровождения, виз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др. Большинство виз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и возможен въ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срок рассмотр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а любой тип визы - минимум 2 недели, а по виз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можно прожить в Корее лишь год(однократная). С этими визами невозможен вылет спецрейсам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лишь рейсом Москва-Инчхон.

По приезду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бязателен 2-х 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 Если пожилые родители-репатрианты внезапно оказались в больнице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то какие документы нужны для въезда?**

-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1-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ехавший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казался в таком положении, то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нужн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дство, либо российск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с переводом на корейский, который заверен канцелярией), справку из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одтверждающую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изита в РК (с указанием контактов), копию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и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справку о прохождении ПЦР-теста, полученную не более чем за 72 часа до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 Можно ли сейчас оформить виз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F4? Насколько знаю, для ее оформления нужны также медицинские справки.**

- Есть целый перечень документов,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F4(справка о судимости, медицинская справка о наличии туберкулеза и т.д.), для въезда также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брони авиабилета, приглашение и медицин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о состоянии родственника, к которому едете.

**- Когда же, наконец, будет возможен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 Пока еще нет официальной пози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обновить безвизовые въезды. Думаю, может это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в но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к тому времени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РК пройдет вакцинацию и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 В связи с реализацией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анцелярии приходится вест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риему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МЖ. Давайте еще раз напомним, какие же документы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этого предоставить.**

- Для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МЖ необходимы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Общие для всех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обустройстве на месте (1 экз.), фото 1 шт., копия паспорта,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кор.) либо копия паспорта.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заявителя: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ое поколени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либо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ж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факт,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 1 экз.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2-ое поколени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если заявление подают супруги) ил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прямым потомком, супругой(ом) прямого потом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ли супругой(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 1 экз.

Если имело место смена имени, фамилии, 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кумент с

апостилем о смене имени(необходим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сдел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опии всех документов для хранения в канцелярии консульства.

**- Можно ли заполни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МЖ на компьютере? Или обязательно от руки? Помогают ли с заполнением Заявления в канцелярии консульства?**

- Написание Заявления заявителем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 это, вообще-то, правило. Так как должна стоять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ая подпись заявителя, то рекомендуется, чтобы заявитель старался сам заполнить заявление. Заполнение и подписание заявления явля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актом гражданского ходатайства, показывает серьезность намерений заявителя, означ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явителя за подлин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Сотрудники канцелярии консульства не могут заполнять заявление вместо заявителя. Однако, тем, кто плохо понимает и плохо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могут дать подробные объяснения, либо оказать не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написании заявления.

**- Могут 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материке,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на ПМЖ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канцелярию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Да, можно при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МЖ.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также во всех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СНГ. Заявитель может обратиться в любое близлежаще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бирающие сейчас документы на ПМЖ,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неожиданными для них проблемами. В основном, это смена имен у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уже уехали на ПМЖ. И получается, в свидетельстве о рождении у них записано одно имя родителей, а в корейском удостоверении личности - другое. Как нужно поступать в этом случае?**

- Если родители поменяли имя в Корее и оно отлично от того, что было, то необходим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смену имени. Его выд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И напротив, если в российский органе выдадут документ, где отличается фамилия либо имя, 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документ(с апостилем),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переведен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подан в консульство.

**- Сейчас в сообщ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порно ходят слухи, что очередность отправки на ПМЖ зависит напрямую от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Все заявления буд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правлены в Обществ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30 июня 2021 г.(последняя дата с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осле проверки с учетом возраста 1-го покол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а очередность выезда на ПМЖ. Об этом не раз было сказано и на брифинге по разъяснению Проекта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об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Еще раз повторю,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н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я к отбору кандидатов. Важно не быстр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а собрать документы, не требующ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точнений.

**- Напом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нашим читателям часы работы канцелярии для с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 Ждем вас в рабочие дни 10:00-12:00, 14:00-17:00. (<http://overseas.mofa.go.kr/ru-sakhalin-ru/index.do> - ссылка на сайт канцеляр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 Благодарим, что смогли уделить время, несмотря на большую занятость.**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у РК будет сделана прививка вакциной AstraZeneca

23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у РК Мун Чжэ Ину и его супруге Ким Чжон Сук будут сделаны прививки вакци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AstraZeneca.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5 март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державшись от дальнейш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вивки президенту и его супруге будут сделаны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важной зарубежной поездке». Мун Чжэ Ин приглашен на саммит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Членам делегаци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президента, также будут сделаны прививки. С 23 марта вакцина производства AstraZeneca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 доба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 Вакцинация людей старше 75 лет начнется в апреле

Вакцинаци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тарше 75 лет и других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х к вирусу групп начнется в апрел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течение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прививки против вируса COVID-19 сделаю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2 млн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и 15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первую неделю апреля будут вакцинированы 3 млн 640 тыс. человек. Пожил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до 74 лет начнут прививаться в июне. И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4 млн 940 тыс. человек. До конца марта будут провакцинированы 376 тыс.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а также пациентов домов престарелых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Сотрудники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51 тыс. учителе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детьм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а также 13 тыс.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чнут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в апреле. В июне настанет очередь 491 тыс. воспитателей детских садов, а также учащихся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ставило цель к сентябрю привить 70% населения, а к ноябрю ожидается создан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 Компания DL E&C модернизирует НПЗ в Рос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DL E&C сообщила 12 марта о подписании промежуточ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едобывающей компанией «Газпромнефть» о модернизации её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стоимостью 29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амках сделки DL E&C модернизирует мощности по добавлению и крекингу водорода.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2024 года, а офи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ть в течение трёх месяцев. «Газпромнефть» - дочернее предприятие крупнейшей в России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Газпром». Компания DL E&C работает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с 2014 года. Она сообщила также о подписании контракта со швейцарской фирмо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удобрений EuroChem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метанол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в Усть-Луге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России.

## Север не реагирует на попытки США установить с ним контакты

Начиная с середины феврал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жо Байдена пыталась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установить контакт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о все попытки оказались безуспешными. Об этом 12 марта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Reuters со ссылкой на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айдена. По его словам, были попытк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частности,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нью-йоркский канал». Имеется в виду миссия КНДР при ООН. Однако никакого ответа от Пхеньяна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Между те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айдена до сих пор не объявила о том, какая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Сообщалось лишь о том, что выработ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пока не завершена.

## LG Energy Solution инвестирует 4,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расшир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в США

LG Energy Solution,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LG Chem, заявила 12 марта о своих намерениях инвестировать к 2025 году 4,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расширение мощност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ккумуляторов в США. В результате инвестиций компания сможет ежегодно производить аккумуляторы суммарной мощностью 75 гигаватт-часов. Кроме того,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о 10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том числе до 6 тыс.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субподрядчиках. LG Energy Solution управляет заводом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литий-ионных аккумуляторов в штате Мичиган и строит новый завод в Огайо в качестве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автомобилей General Motors.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в 2022 году, после чего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ё одного завода. LG Energy Solution имеет также два завода в Китае, по одному в РК и Польше. Имеющие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120 гигаватт-часов в год, позволяя ежегодно производить аккумуляторы для 2 млн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RKI)

## Аэрофлот попал в число проблемных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авиакомпа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Юж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о, что 10 авиакомпаний страны владеют 390 самолетами, 45 из которых имеют срок эксплуатации свыше 20 лет. Они принадлежат Korean Air, Asiana Airlines, Jin Air и Air Incheon.

Из 390 самолетов 354 пассажирские и 36 грузовые, при этом 34 и 11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тарше 20 лет. Как отмет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виакомпан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ыполняют рейсы в 173 города мира, при этом старые самолеты летают в 104 города, включая 36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34 в Китае и 10 в Японии.

В период с 2016 по 2020 год в 14 авиакомпаниях произошло 14 инцидентов с 10 и более смертельными случаями в каждом. Из этих 14 авиакомпаний Turkish Airlines, Ethiopian Airlines и Аэрофлот осуществляют рейсы в Южную Корею. В частности, Turkish Airlines выполняет три рейса в неделю между Стамбулом и Инчхоном, такое же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ыполняет Ethiopian Airlines между Адис Абебой и Инчхоном, а Аэрофлот летает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между Шереметьево и Инчхоном.

К таким авиакомпаниям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чало применять восемь вместо двух инспекций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год. Они также ограничены в организации новых рейсов в Южную Корею. **ИА РУСКОР**

## Страна вошла в мировую четвёрку заявител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атенты

Офи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Кореи сообщ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обратилась с заявками на 20 060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атен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став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лишь от Китая, США и Японии. За девять лет цифра удвоилась и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20 000.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заявок Южной Коре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атенты выросло на 5,2 процента, несмотря на глобаль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рецессию, вызванную COVID-19. Страна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в плане темпов роста после Китая и Швейцарии, заявки которых вырос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16 и 5,5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число заявок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атенты составило 275 900 по всему миру,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4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дом ранее. Список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озглавил Китай, подавший 68 720 заявок, на 16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Разница между Китаем и США по числу поданных заявок выросла с 1 694 до 9 490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заявок, поданных Японией и Германией, сократилос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4,1 и 3,7 процента.

Самое большое число заявок подала китайская компания Huawei как корпорация. Далее следуют японская Mitsubishi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Samsung Electronics и LG Electronics. **ИА РУСКОР**

## Дома хорошо, а в отеле лучше

Эпи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дсказала растущему числу южнокорейцев переезжать в отели, поскольку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номера сделало их доступными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Резкий спад иностранных визитеров вынудил отели в престижных районах Сеула рекламирова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пакеты услуг. Также растет число 20-летних и 30-летних, которым надоедает сидеть дома при локдауне, а отели предлагают как услуги, так и смену атмосферы.

31-летний офисный сотрудник переехал в 3-звездный отель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 10 минутах ходьбы до своего офиса. Месячная 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660 000 вон или лишь 20 000 вон в день (US\$1 = W1 125). Он сказал, что хочет экономить время для поездок на работу, обычно занимающее два часа, а также бесплат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тренажерным залом отеля.

«В номере отеля есть небольшая кухня, где я могу подогревать пищу в микроволновой печи или же поль-

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доставки», — сказал он. В отеле также есть прачечная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я.

Доступный номер в отеле стоит от 450 000 до 650 000 вон в месяц, а в престижных районах от 700 000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номеров в отелях Сеула составляет 42 692 вон в сут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мер в отеле стоимостью около 600 000 вон в месяц обходится вдвое дешевле.

47-летний Мун Чжун Хо, который владеет гостевым домом, принимает постояльцев только на месячной основе с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ун сдает комнаты за месячную плату от 450 000 до 600 000 вон.

Растет число и веб-сайтов, рекламирующих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отелях. Владеющий сайтом <http://www.livinginhotel.com> Ким Бун Чжу сказал, что 40 отелей ста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сайта через четыре месяц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начал свой бизнес.

**ИА РУСКОР**

##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компаний, сокращающих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фоне затянувшей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ецессии, вызванной эпидемией COVID-19, шесть из 10 конгломера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еще не определились с планам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этого года.

В институт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что обследование 500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страны по плана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казало, что 17,3 процента н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на работу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8,8 процента в подобном опрос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46,3 процента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не смогли принять план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связи с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ями, что выше, чем 32,5 процен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ишь треть компаний или 36,4 процента решили принять на работу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но их число будет либо тем же самым, либо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лишь три из 10 из них ожидают трудоустроить больше.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послужил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рецессия, вызванная эпидемией.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компаний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снижают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виду ухудшающейся экономики и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в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12,8 процента назвали недостаток гибкост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Поскольку трудно предсказать, когда все нормализуется, для компаний естественно снижать трудовые затраты», — сказал промышленный источник.

**ИА РУСКОР**

## Сеул возглавил нов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Южная Корея возглави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спортный комитет (IEC), сообщили во вновь сформированной экспортной группе.

В ход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оводу формирования IEC Ким Ёк Кун, один из учредителей комитета, был избран его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IEC является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возглавляемой Южной Кореей, Грецией и Бельгией.

Штаб-квартира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столице Бельгии Брюсселе, а глобальная экспорт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йдет в Сеуле в будущем году.

В Сеул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и офисы экспорт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реи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спортного комитета.

**ИА РУСКОР**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нял очередные антиковид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губернатора с 15 марта отменено требование о переводе 30 процентов сотрудников на дистанцион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до 18 лет снова могут посещать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центры без сопровождения родителей.

— Больше 32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же сделали прививки.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аждый день идет на спад.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 н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привычной жизни.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се сотрудники предприятий снова выйдут в офис и вернуться к более удобному режиму работы. А дети с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ывать в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центр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не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нил целый ряд анти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едприятиям общепита разрешили работать круглосуточно. Перест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требования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человек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Для въезда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больше не нужны цифровые пропуска и справки об отсутств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прежнему необходимо носить маск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 на объектах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аптека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 парковках, в лифтах. Также дей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е о соблюдении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 33 юных сахалинц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Первый детский игровой чемпионат BabySkills состоялся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е №6. Ребята в возрасте 7-10 лет показали свои умения в пяти профессиях.

Школьники состязались в компетенциях: «Инженер-строитель»,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Преподавание в младших классах»,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 Мы первы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пускаем детский чемпионат. Ребята перед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тренировались, практиковались с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Детская программа отличается от основной и юниорской. У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участников меньше заданий, и они проще в исполнении, — рассказал организатор чемпионата Антон Ким.

Лев Ульянов выбрал компетенцию «Инженер-строитель». В будущем мальчик думает связ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со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ой.

— Я хочу развивать город, строить новые дома — это моя мечта. А еще я хочу стать врачом и построить клинику для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чтобы люди там лечились и выздоравливали, — поделился юный сахалинец.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три этапа. На первом школьники показали свои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о профессии. На втором и третьем —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мения на практике. Например, участники компетенции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встречали в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м ресторане гостей. В их роли выступали мамы школьников.

— Кажется, я волновалась больше сына. Мне нравится такой чемпионат. Все новое и интересное привлекает моего сына. Он во всем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а я всегда рядом,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Антонина Сак.

Чемпионат для детей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VI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Вс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остязания объединили более 60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WorldSkills — относительно молод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Наша страна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нему только в 2012 году. И вот уже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чемпионат для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ют в основной категор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воевали дв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Мы гордимся эт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Надеемся, в будущем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участники тоже получат награды,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Бабина.

Итоги дет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дведут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19 марта.

## На Сахалин доставили вакцину «Спутник-Лай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получившим новый препарат. Из выпущенных заводом-изготовителем 2 тысяч доз,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тправлено 150.

Основное отличие «Спутника-Лайт» от обычного «Спутника» — однократное введение препарата. Поскольку вакцину только нач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привитых будут вести более углубленный контроль.

— Пациенту в любом случае потребуется прийти два раза — сначала на медосмотр со сдачей анализов — на биохимию крови, на инфекции, женщинам на беременность,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этот факт. Это те же самые процедуры,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в свое время со «Спутником V»,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епарат содержит «облегченный» состав вакцин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вухкомпонентным. Такая формула позволяет быстрее сформировать защитный иммунитет. При этом срок действия полученных антител, по данны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акже сокращен. Перед применением «Спутника-Лайт»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пройду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вакцинация препаратом

начнется через неделю. Это время также потребуется,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здоровье у желающих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Все процедур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ового препарата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записаться на «Спутник-Лайт»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1-300.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в стране по объемам иммунизации жителей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акциной «Спутник V» уже привились более 31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них 22 тысячи сделали две прививки. Осложнений ни в одном случае не выявлено. Запись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ступны три способа — по телефону 1-300,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и через личное обращение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судили технологии снижен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Состоявший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Сахалинским клима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а также компани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энерго» и ряда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в проведен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углеродн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Он создает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атмосферу.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же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ЖКХ,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Они помогают сократить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Этот вопрос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Есть и примеры со стороны бизнеса по внедрению подобных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сообщили,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ладает уникаль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внедрения различ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по сохранению климата. Здесь есть ресурсы для развития всех видов энергии на основ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 от ветра до тепловой энергии недр Земли и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2019 году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четы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паниями РЖД, Росатом и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ассажирского пригородного сообщ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оездов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может стать единственным в мире, гд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сеть пригородного сообщения использует водородную энергию.

В 2020 году был образован Сахалинский клима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овместно с Институтом глобального климата и экологии им. Ю.А.Израэля. А СахГУ вошёл в консорциум по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е с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и науч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траны: Томским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амар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техниче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ститутом катализа им. Г.К. Борескова Сиби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Институтом проблем химической физик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Институтом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го синтеза им. А.В.Топчиев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Напомним, целью Париж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о климату, стороно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и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та средней глобальной температуры в пределах 2 градусов Цельсия. Наличие технологий определ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тран по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ли их поглощения.

## Из Охи в Хабаровск отправился первый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ерыва авиарейс

Сегодня в 13:00 из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острова по маршруту вылетел самолет с пассажирами на борту. В пункт назначения он прибывает в 14:00. Рейс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4:50. Поручение возобновить авиа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Охой и Хабаровском ранее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 этом цены на билеты сохранили на прежнем уровне — 5 840 рублей в о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хинцы очень долго ждали этого события. Для нас было важно возобновить рейсы именно сейчас — перед сезоном отпусков и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ей в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месте с улучшением эпидобстановки северяне вновь смогут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авиасообщение ранее приостанови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Теперь самолет будет совершать рейсы между Охой и Хабаровском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и пятницам.

— У меня в Хабаровске живут родственники. Хотелось бы видеться с ними чаще. Летать через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долго, неудобно и накладно. Здорово, что теперь мож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напрямую. Да еще и по нормальной цене, — отметил житель города Александр Тарасов.

— Спасибо, что вернули авиарейс.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о. У меня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живет дочка. Теперь добираться до неё будет очень удобно — на самолете в Хабаровск, а потом на поезде в её деревню, — поделился Сергей Тимченко.

Отметим,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олетов на данном направ-

лении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с материком, а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т время в пути для пассажиров.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лечить аритмии, не покида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м сосудистом центре открыли отделение аритмологии. Ежегодно здесь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до тысячи пациентов.

— Забота о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наша важнейшая задача. Поэтому открытие такого отделения было лишь вопросом времени. Раньше нашим жителям, страдающим от различных нарушений сердечного ритма, приходилось уезжать на лечение в Хабаровск — в федеральный карди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Теперь т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т. Для наше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это огромный шаг вперед.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нас с этим событие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м отделении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операций. Основные из них — установка кардиостимуляторов и радиочастотные абляции сердца (прижигание участка сердечной мышцы). Также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здесь терапев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 Мы планомерно шли к открытию этого отдел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купили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гласили специалиста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карди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Он, кстати, сахалинец. В результате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мы сделали 70 абляций, в этом планируем — 90,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Отделение аритмологии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до 20 пациент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личество коек увеличат до 30. В числе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 Михаил Савицкий из Холмска.

— Радует, что теперь на Сахалине выполняют такие операции. В моем случае — наступило время менять кардиостимулятор. Мне 92 года. Врач сказал, что поставит прибор с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ом службы. Как раз до 100 лет хватит, — поделился сахалинец.

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алина Ермак стала первой пациенткой отделения, которой в новом отделении установили кардиостимулятор.

— Чувствую себя хорошо. Сама операция прошла гладко. Врачи 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ые. Сейчас мне буд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 сердечный ритм, назначат леч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делают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С этой целью 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корпусе поликлиники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работает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й центр медосмотров. Объект сдадут в 2022 году. А уже в этом такой центр откроется на базе Тымовской ЦРБ. Там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обследования жители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Центр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и на базе Томаринской больницы.

Возможность углубленной проверки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у сахалинцев старше 65 лет появилась в 2020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на базе КДЦ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й центр медосмотров.

Кроме т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корпус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там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до 900 пациентов в сутки.

##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ахалина смогут кататься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ежедневно

С 12 марта склоны горы доступны для ежедневного катания. Любители горных лыж и сноуборд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трассы с 11:00 до 19:00.

Напомним, первой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открыли самую протяженную трассу с рабочим названием «А1». Её длина составляет 4,5 километра.

Чуть позже доступными стали ещё две трассы. «А2»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900 метров по уровню сложности является «чёрной» — она подойдёт только очень опытным горнолыжникам и сноубордистам.

Трасса «А3» длиной 800 метров подходит для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уровень её сложности — «синий».

Руководство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сит отдыхающих учитывать свои навыки и силы при выборе трасс для катания на горе Красная.

Для прохода к подножию Красной гостям комплекса нужно подняться на верхнюю станцию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и спуститься по трассе «Восток» или «Юг». Подъем по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на вершину Красно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 горнолыжном снаряжении.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поминает посетителям комплекса о неукоснительном соблюдении правил пользования канатной дорогой.

При пользовании кресельным подъемником категорически запрещается:

- ехать в кресле с поднятой рам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ехать в кресле стоя;
- пересаживаться с места на место в кресле;
- раскачивать кресло во время движения.

Всю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аботе трасс и канатных дорог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51-11-20, а также на сайт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https://ski-gv.ru/> и в Instagram аккаунте @gornyy\_vozdukh.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대에 한국학연구소 개원

##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적 기억 보존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능

지난 3월 12일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에 한국학연구소가 개원했다. 러시아 남부지역 최초의 한국학 연구기관이다.

이번 볼고그라드국립대 한국학연구소 설립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의 해외한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카잔연방대 한국학중핵사업단(단장 고영철)이 후원해 이뤄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볼고그라드국립대 까리니나 알라 총장, 드제직 발렌틴 부총장, 수스로프 알렉세이 추가교육개발대학장 등의 대학 측 인사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한국학진흥사업단장과 카잔연방대 고영철 한국학연구소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볼고그라드국립대 한국학연구소는 앞으로 러시아 남부지역의 한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러시아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10만여 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조사연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 강좌 증설과 전공 개설, 한국역사 등 한국학 교과목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는 수스로프 알렉세이 소장을 비롯해 연구원 5명과 조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학과 관련된 사회적 연구 데이터와 기록 및 전기 자료, 통계 데이터를 역사-사회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고려인 문제, 한-러 사회문화와 국제관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원식 후에는 볼고그라드국립대 본관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제1회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가 '러시아-한국 대화: 우리 시대의 역사와 도전에서 얻은 교훈'이란 주제로 열렸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 각 지역과 한국, 미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참가한 한국학자들이 한국역사, 국제관계,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민족



지난 3월 12일 열린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개원식에서 까리니나 알라 볼고그라드국립대 총장(왼쪽)과 고영철 카잔연방대 교수가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카잔연방대 한국학중핵사업단)



지난 3월 12일 열린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개원식에서 한국학연구소 연구원과 관계자들 (사진 카잔연방대 한국학중핵사업단)

학 관련 논문 26편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발표했다.

볼고그라드에는 고려인들이 1960년부터 농업이주로 거주하기 시작해 현재 25,000명이 볼고그라드 시내와 볼고그라드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 남부 칼미키야공화국으로 이주해 벼농사를 위한 집단농장에 소속됐다. 1968년경부터는 인근 볼고그라드주 이주해 현재까지 정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서울 새문안교회가 설립한 선교센터와 재외동포재단 등이 후원한 고려인문화센터가 한국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지난 3월 12일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에 한국학연구소가 개원했다. 개원식 후 진행된 '제1회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현장 참가자들 (사진 카잔연방대 한국학중핵사업단)

# 한국어사업, 국내 대학이 거점역할 하려면 내실 다져야

## 한국어 수요 급증에 교육부, 한국어 교원 양성사업 신설대학 "사업 성공하려면 교육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풀어야"중도 포기 등 실효성 지적에 "멘토링 사업 등으로 대처"

코로나19도 한류의 인기는 막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15만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교과목을 수강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자 교육부는 국내 대학을 활용해 지한 인사를 키우고 국가 간 교육 교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현지 교육기관이 대상인만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대학-해외대학 협력해 한국어 교원 양성** =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국가는 2010년 21개국 525개 학교에서 2020년 40개국 1700개 학교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도 2005년 2만 6500여 명에서 2019년 37만 6000여 명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교육하고 연구할 현지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을 추진했다. 그동안 국립국제교육재단(KF)의 'KF 글로벌 e-스쿨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국어·한국어 전파 사업이 운영됐다. 여기에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한국어교원 양성 사업구상 초기부터 대학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는 △경희대(베트남 호치민인사대) △계명대(우크라이나 우신스키사범대, 키예프국립외대) △이화여대(러시아 모스크바국립외대) 등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국내 대학은 해외 협력대학에 커리큘럼 설계, 컨설팅, 동영상 강의 송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수업은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회의를 접목한 온라인 기반의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현지 대학에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현지 교사와 학생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 한국 교육부와 러시아 교육부는 이화여대와 함께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학에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했다. 첫해인 2020년 23대 1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해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학교와의 개강 전 회의 장면. (사진 = 이화여대)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혜영 이화여대 국제처장(한국문화연구원장)은 "러시아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마치면 러시아에서 인정한 한국어 교원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다"면서 "오는 6월 중 한국문화를 교실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습과정 등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올해는 현지 교원양성과정 14개, 과건 132명, 연수 4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 대상 국가는 스태국(쭈라롱콘대, 실라빠콘대) △필리핀(필리핀국립대) △투르크메니스탄(아자디국립대) △러시아(사할린국립대) △인도(네루대) △키르기스스탄(아라바예바국립대) △과테말라(산카를로스국립대) 등이다.

■**"사업 성공하려면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 참여 대학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처장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정 계명대 국제처장은 "해외 대학에 양성체계를 구축해도 대학을 떠난 사람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해당 국가의 교육부와 풀어야 할 문제를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 처장은 "국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교육 자격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현지 교육부와 협력해 공식적인 자격제도를 마련한다면 한국어 교원이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사업비가 새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행하는 교원양성 사업에 '정부초청 장학사업(GKS)'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연구과정 등으로 구분되며 항공료를 비롯해 등록금, 생활비, 의료보험비, 연구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 해 평균 21.3%가 학위를 따지 않고 중도 포기해 '떡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S 사업에 연 466억 원의 세입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학위를 따지 않고 중도에 귀국해도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학위를 취득한다고 해도 이들이 국내나 해외에서 한국어 관련 일을 할 의무도 없고 진로 계획에 대한 조사에도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이다"면서 "사업 취지에 맞는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내 멘토링 사업을 신설하고 현지 공과과의 협력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정현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센터장은 "지난해 GKS 사업 동문회를 구성해 한국 유학생들 적응을 돕도록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도 포기를 낮추고 학위과정을 이수한 외국인들도 관련된 일을 지속해서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기에 분기별로 해당 대학을 통해 학점 이수율, 자체 상담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주재하는 공관에 예산을 지원해 학술세미나 등 여러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공관에 주최하는 행사에 동문이 참여해 GKS사업을 홍보·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과과 협업을 해 현지에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в антитабачные кабинеты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напоминают, чт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работают 6 медицинских кабинетов по отказу от курения, гд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ут горожанам избавиться от табач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Как отмечаю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курение — один из самых серьезных факторов риска для здоровья. Оно провоцирует развитие хронических не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обостриться и привести к самым серьез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По мнению медиков, крайне важно,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горожан пришли к решени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редной привычки и обратились за помощью к врачам.

Так, бесплат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о лечению от табач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горожа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 учреждениях:

-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нар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ул. Горького, 12а);
-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л. Леонова, 40);
- поликлиника №2 (пр. Мира, 85),
- поликлиника №4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200);
- поликлиника №6 (пер.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12, корп. 1,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 детская город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ул. Емельянова, 2).

Всем обратившимся (в том числ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специалисты оказывают анонимную бесплатную помощь в борьбе с вредной привычкой. Кроме этого,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как победить табакозависимость,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ам: 500838, 760831.

Лечение включает как простые 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так и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Эффективно применяется физио- и психотерапия, а также никотинзамещение (жевательные резинки, спреи, ингаляторы), которые увеличивают вероятность отказа от курения примерно в 1,5-2 раз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Сахалин주 실업률, 전체 38위

Сахалин주의 실업률이 러시아 전 지역 순위에서 3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노보스치' 러시아 통신사가 발표했다. 1년 만에 사할린 지역의 실업자 수가 40%로 내려간 가운데 현재까지 사할린 지역에 인구의 5.7%가 실직자이다.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구직 기간은 평균 7개월이 걸리는데 해당 순위에서 사할린주의 실업률은 러시아 평균 실업률보다 0.2%나 높은 편이다.

지역별 취업 상황이 좋은 지역들의 실업률은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2.5%), 한티 만시스크 자치구 - 유그라(3.2%), 상트페테르부르크(3.3%), 반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은 인구셰치야 공화국이 (31.6%), 체첸 공화국(20.6%), 티바 공화국(16.9%)이다. 극동지역들 중 가장 실업과의 싸움에서 성공한 하바롭스크 변경은 실업률이 4%로 러시아 전국 순위

서 9위를 차지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은 부랴치야 공화국(10.8%)로 전체 순위에서 77위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러시아 국민의 실업률은 1.3% 높아졌고 현재 446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 По уровню безработицы Сахалин на 38 мест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38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по уровню безработицы, опубликованного РИА «Новости». За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безработных на островах снизилось на 40%.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 области без работы находится 5,7% населения. А поиск работы у людей, лишившихся дохода в среднем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семь месяцев.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снове рейтинга, луч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на 0,2%. Лучшее дело по стране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жителей обстоит в Ямало-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2,5%),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 Югре (3,2%)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3,3%). А хуже всего – в Ингушетии (31,6%), Чечне (20,6%) и Республике Тыва (16,9%).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самый успешный в борьбе с безработицей стал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4%). Он на девятом месте рейтинга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по уровню безработицы. Хуже всех –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10,8%), занявшая 77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показатель уровня безработных среди граждан России ухудшился на 1,3%. Сегодня в поисках занятости находятся 4,46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b>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b>	
<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